

Issue Comment

2018. 10.22

음식료

위클리 및 종목 코멘트

음식료 Weekly

메리츠 음식료 김정욱 (6414@meritz.co.kr)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1. 전주 동향

음식료

10월 셋째 주 음식료(식품, 음료, 담배) 주가는 전주 대비 2.1% 상승. 원/달러 환율은 1,132.1원으로 상승. 곡물가는 옥수수(-1.8% WoW), 소맥(-0.5% WoW), 대두(-1.2% WoW), 원당(+6.3% WoW) 기록. 옥수수는 미국 애탄을 재고량 2,413만 배럴로 늘어나 6개월래 최고치 기록, 애탄을 제조용 옥수수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 전주 옥수수 수출 판매 부진 소식도 가격 약세 요인으로 작용. 소맥은 기술적 매도세 유입으로 가격 전주 대비 0.5% 하락. 한편 18/19시즌 하반기 러시아 소맥 수출 둔화 가능성에 낙폭 제한. 대두는 2018년 4분기 중국이 6.6억~7.4억 부셸의 대두를 수입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수치로 가격 하락 이끌. 한편 10/20일 중국으로의 660만 부셸의 대두 계약 취소 소식도 가격 하락 요인. 원당은 브라질 헤알화 가치 상승으로 브라질 원당 판매자들의 판매 의지가 약화된 가운데, 세계 2위 원당 생산국인 인도에서의 사탕수수 병증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며 전주 대비 가격 6.3% 상승.

중국 라이신 제조업체 점차 생산 재개 및 새로운 캐파 증설 출현. 타이트한 원재료 공급이 라이신 원가 부담으로 작용해 단기간 생산량 감소 예상되며 가격 상승 전망. Fufeng 캐파 증설 이후 생산 개시, Dongxiao 11월 공장 가동 예정. 최근 중국 Dong Xiao의 CJ제일제당에 대한 라이신 특히 무효 청구에 대해 재심의 기관의 기각 발표. 메티오너는 중국 국내 제조업체들의 생산 중단으로 타이트한 공급 상황. Evonik 가격 21.5 위안/kg 까지 상승. 8월 수입은 9% 증가한 한편 수출은 21% 증가. 일부 제조업체 생산 재개 준비중이나 단기간은 메티오너 가격 점차 상승될 것으로 전망. 쓰레오너는 재고 압력 지속으로 단기간 약세 지속 전망. 최근 중국 내 대우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대우박 현물 가격 상승 중. 4분기 대우박 수요 축소될 것으로 전망. 트립토 편은 최근 생산 재개로 인한 공급 증가 예상. 환경 보호 규제로 매매 Tongliao 공장, Ningxia Yipin 공장 생산 중단 중.

국내 이벤트는 1. 가공식품, 식료품 지출액 증가율(2010~2017년) 7.2%로 가장 높게 상승. 익식비 5.1%, 신선식품 4% 2.롯데칠성, 생수 '아이시스8.0' 제품 18년 1~9월 누계 매출 전년 대비 19% 증가. 300ml 제품은 동기간 40%, 1L 제품은 182% 증가. 3.동원산업, 유통업체 월마트 등 미국 소매업체, 동원산업과 미국 종축회사인 스타키스트 등 총 9곳 상대로 가격담합과 관련한 소송 제기. 4.필립모리스,아이코스 후속제품 일본에서 연내 출시. 한국에는 19년 상반기 출시 예정. 5.남양유업, 흰 우유 가격 5년 만에 4.5%인상. '맛있는 우유 GT' 200ml는 33원, 500ml는 50원 인상, 기준 900ml 제품은 1L로 변경.

2. 금주 전망

음식료: 3Q18 Preview 전년도 높은 베이스 효과로 YoY 실적 보다는 QoQ 개선 및 예상치 상회 종목에 주목: CJ제일제당, 오리온, 대상, 매일유업 실적 호조 예상. KT&G는 실적은 부진이나 예상치 수준 배당 증가 가능성이 중요

음식료 섹터는 전주대비 부진 지속. KOSPI 하락과 연동되며 지수도 동반 하락했지만 환율 상승 우려가 반영된 과도한 하락이라는 판단. 시총 상위주의 주가 상승 모멘텀 부각 시 섹터 지수 반등 가능성 있다고 판단. 특징주 오리온 중국 3분기 월별 매출액 증가세 지속. 7월 800억원 상회를 기록한 이후 9월 1000억원 상회 전망. 신제품은 점진적인 증가세 보인 가운데 기준 제품의 회복이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는 점이 긍정적. 2분기 대비 대형 신제품 부제로 마케팅비 절감 예상.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 가능성 있음. CJ제일제당 가공식품 매출액 15% 성장세 회계처리 변경 감안 시 7~8% 성장 예상. 소재는 원당가격 하락 효과, 사료는 축산시세 회복 효과 지속. 해외바이오는 메티오너 기준중단, 일부 아미노산 제품 판가 하락으로 QoQ 유지 혹은 소폭 감의 예상. 전반적인 실적흐름은 가공식품 호조로 컨센서스 부합 예상. KT&G 담배 수출 부진 지속 중동 물량 부제로 수출단배 배출은 3018 30% 이상 감소 전망. 일반 담배는 전자 담배 마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며 BEP 상회. 하반기는 일반담배 마진 따라잡을 전망. 홍삼은 선물 세트 판매 호조로 국내 외형 성장 지속. 해외는 재고 정리 효과로 전년비 고성장 지속.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하며 컨센서스 하회전망. 다만 배당 증가 관련 기대감이 주가 하방을 지지할 전망. 대상 김치 매출이 3분기 매출 성장을 이끄는 가운데 비용 정책 변화가 실적 성장 흐름 지속시키는 동력으로 판단. 매일유업 상하목장 등 고성장 카테고리 매출 성장 지속. 무더위에 따른 음료 매출 호조 기록 예상. 전년비 판촉비 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 성장 흐름이 어갈 전망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관심종목

CJ제일제당 (097950)

3Q18 실적은 가공식품 매출 고성장 회복, 소재 원당가격 하락 지속, 사료 부문 해외 양돈/육계 시세 회복으로 컨센서스 부합하는 실적 전망. 해외바이오는 메티오너 섯다운 영향을 셀렉타 정상화 효과가 상쇄하며 QoQ 소폭의 이익 성장 예상. 4Q18은 전년도 낮은 베이스 효과와 비용 연간 배분 정책, 해외바이오 시황 개선이 실적 성장의 포인트. 쉬완스 M&A는 딜 구조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지연증. 인수 확정 및 기업가치 28조~3조원 가치로 평가. 시너지 효과에 따른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쉬완스는 전국적으로 공장 20개, 물류센터 4개를 운영. 월마트, 샘스클럽, 타겟 등 전국 매장 및 다양한 유통 채널 확보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CJ제일제당의 월마트 입점 매장 수는 100개 미만, 월마트 미국 매장 수 4,672개) 인수 이후 쉬완스가 확보한 매대에 CJ제일제당 냉동, HMR 제품으로 입점 가능할 전망. 현재는 홈서비스 사업을 제외한 지분 인수도 고려중

KT&G (033780)

3Q18 국내담배는 수량기준 담배시장 9% 감소, KT&G 7~8% 감소로 전자담배 침투 지연으로 예상 대비 호조. 해외담배는 재계약 완료에도 불구 3분기까지 매출액 기준 30% 감소 예상(중동 지역 세금, 환율의 부정적 영향은 지속). 홍삼 국내/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3Q18 연결 영업이익 10%~15% 감익 흐름 지속될 전망. 현금 활용 방안 검토중으로 배당 확대 가능성은 유보하며 10만원 주가에서 하방경직성 확보 판단. 국내담배는 7~8월 담배시장 9% 감소, KT&G 일반담배는 7~8% 감소, 점유율은 2Q18 61.9%에서 3Q18 62% 초반으로 소폭 상승세. PMI, BAT는 상대적으로 일반담배 시장에 집중도 저하. 해외담배는 18년 알로코자이와의 5년 주기 재계약은 2분기 완료됐지만, UAE 17년 10월 담배소비세 100% 인상, UAE 18년 1월 부가가치세 5% 부과, 이란 환율 상승 18.9월 +25.8% yoy(8월 고점 대비 13.9% 하락), 터키 환율 상승 18.9월 +76.7% yoy 영향은 지속 중. 18년 3분기 국내홍삼은 추석 프로 모션 호조로 매출 고성장 지속. 국내는 10% 중반, 해외는 70~80% 성장 예상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0월 2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0월 2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0월 2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